ECONOMIC FOCUS

2026. 4. 23

Macro Team

정성태 Senior Economist
sungtai.chung @samsung.com

금종호 Economist
jongho.keum@samsung.com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한국 1Q GDP

반도체가 이끈 서프라이즈; '26년 성장률 전망 2.7%로 상향

- 1Q 성장률 전기 대비 1.7%로 당사 예상 상회. 4Q 부진의 기저효과와 반도체 수출 급증 및 그에 따른 투자 확대 영향. 단, 4월 들어 전쟁의 악영향 일부 확인
- 2Q 휴전 시나리오 하에서, '26년 한국 성장률 전망 기존 2.3%에서 2.7%로 상향. 한은 금리 전망도 기존 장기 동결에서 연내 동결 및 '27년 두 차례 인상으로 변경

'26년 1Q 한국의 성장률은 전기 대비 1.7%(전년 대비 3.7%)를 기록하며, 당사(1.0%) 및 금융시장 예상(0.9%, Bloomberg 기준)을 크게 상회했다. 이는 지난해 4Q 역성장(-0.2%)에 따른 기저효과와 수출 증가 및 그로 인한 투자 확대에서 비롯된다(이하 전기대비). 지난 4Q -1.7%를 기록했던 수출은 반도체 수출 급증에 힘입어 5.1%를 기록했고, -1.7%와 -3.5%로 부진했던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각각 4.8%와 2.8%로 개선되었다. 당사의 예상대로 반도체 수출 급증이 건물건설 및 설비 투자 확대를 견인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한편, 2월말 발발한 이란 전쟁의 영향은 1Q에는 생산보다는 재고 조정을 통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재고 증감의 GDP 기여도는 전기대비 -0.4%pts). 반면, 민간소비는 0.5%에 그쳤는데, 생산 및 수출의 확대가 주로 반도체 및 관련 산업에 국한된 영향이다.

'26년 성장률 전망 2.7%로 상향; 한은 연내 동결, '27년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

당사는 예상을 상회한 1Q GDP와 반도체 수출 확대 및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26년 한국 성장률 전망을 기존의 2.3%에서 2.7%로 상향 조정한다. 당사는 올해 반도체 수출 증가율(통관 기준)을 전년대비 120%로 예상하며, 이는 설비투자의 확대, 소비 및 세입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주요 반도체 기업의 순이익 전망과 그로 인한 파급효과까지 감안하면, '26년 세수 증가는 4월 추경에서 정부가 예상한 27조원을 크게 상회하는 70조원에 이를 것이다.

다만, 이란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고, 종전이 되더라도 에너지 수급이 전쟁 전으로 복원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실제로 이미 전쟁의 영향이 일부 지표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4월 1~20일 수출은 전년 대비 49.4%를 기록했지만, 자동차(-14.1%), 가전(-16.4%) 등은 부진했다. 또한, 한국은행의 소비자심리 지수도 2월 112.1에서 2개월 연속 하락하여 4월에는 99.2로 크게 낮아졌다. 대체로 큰 폭의 소비자심리지수 하락은 시차를 두고 민간소비의 둔화로 이어진다. 물론, 2Q에는 26.2조원(GDP의 1% 내외)의 추경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면서 전쟁의 악영향을 일부 상쇄할 전망이나, 실질적인 성장률 제고 효과는 0.4~0.5%에 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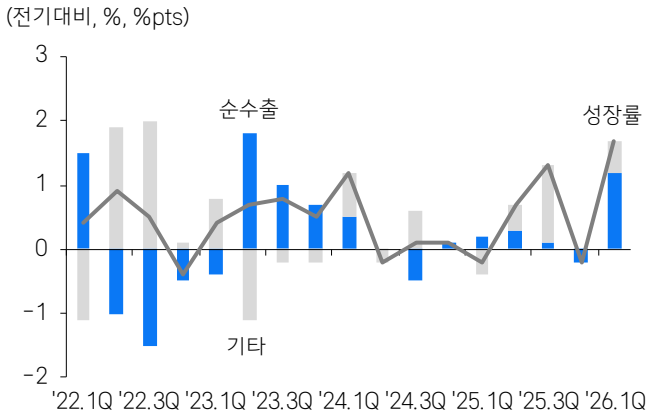
한편, 당사는 성장 전망의 개선을 감안하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전망을 기존의 장기 동결에서 연내 동결 및 '27년 두 차례 인상(2.5% → 3.0%)으로 변경한다. 다만, 이는 당사의 기본 시나리오(2Q 내 휴전)에 기반한다. 아울러, 한은의 내년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보다는 성장률 전망의 개선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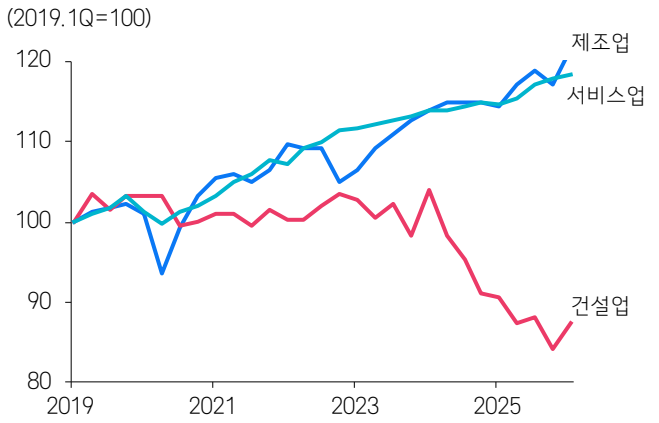
삼성증권

지출별 성장 기여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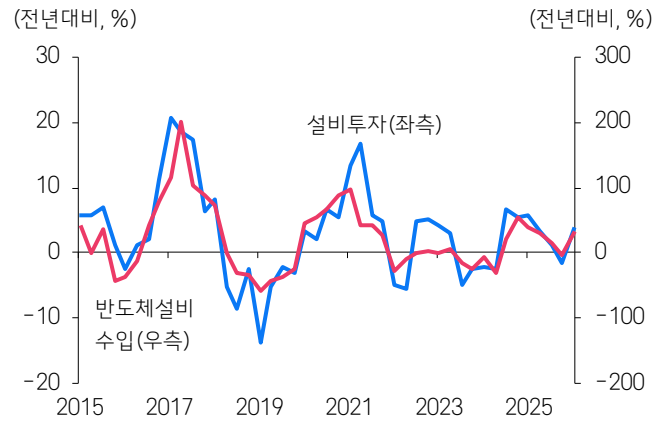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삼성증권

경제활동별 GDP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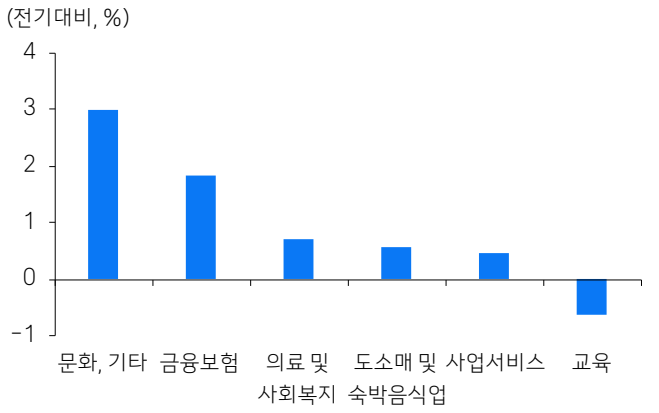
참고: 계절조정, 실질 값으로 추정
자료: 한국은행, 삼성증권

설비투자는 반도체설비 수입과 함께 증가



참고: 반도체설비 수입은 통관 기준
자료: 한국은행, 관세청, 삼성증권

서비스업 중 금융 및 보험업 양호



참고: 계절조정 기준
자료: 한국은행, 삼성증권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